



현대적 감각의 모차르트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_ Così fan tutte>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극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의 성공에 이어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코믹 오페라 작품이다. 유명 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의 유쾌한 대본과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만의 섬세하고 세련된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이 작품은 나이 많고 부유한 돈 알폰소가 두 청년에게 약혼녀들의 사랑을 시험해보자는 내기를 부추기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여기,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있다. 그들은 연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침을 튀기며 자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이 많은 돈 알폰소는 여자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그들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한다.

내기에 빠져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두 사람. 사랑에 빠진 두 아가씨,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쟁터로 떠난 원래 연인에 대한 굳건한 지조를 맹세한다. 그러나 돈 알폰소와 협력자 테스피나의 계략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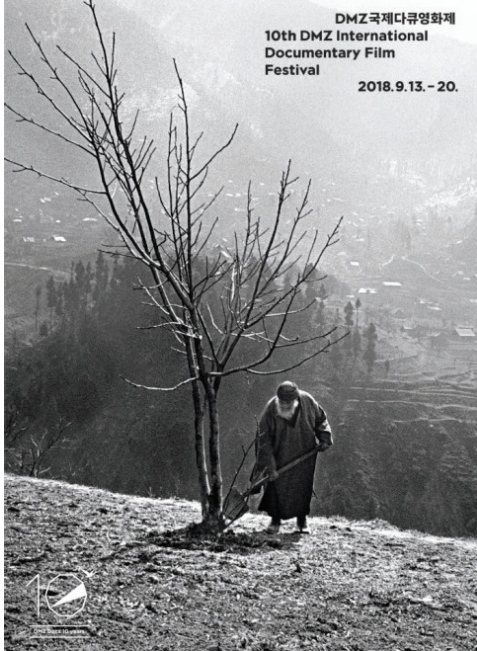
고 결국 변심하고 만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사기 소동이 마치 한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유쾌하게 펼쳐지는데…”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윤호근)은 9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선보인다. 국립오페라단이 이 작품을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은 2001년 이후 17년 만이다.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예술감독은 “여느 오페라들과는 달리 열린 결말을 가진 <코지 판 투테>는 우리 시대, 우리 세대를 위한 다양한 재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며 “오랜만에 새롭게 제작하는 만큼 신선한 해석을 담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코믹 오페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품에는 마에스트로 다비드 레일랑과 신선한 감각의 연출가 니콜라 베를로파가 합류한다. 벨기에 출신의 지휘자 다비드 레일랑은 룩셈부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 현재 생테티엔 오페라극장 예술자문 및 수석 객원지휘자, 로잔 심포니에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연진으로는 피오르딜리지 역의 소프라노 루잔만타시안을 비롯해 소프라노 최윤정이 맡는다. 도라벨라 역은 모차르트 작품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



2018 WORLD OPERA FESTIVAL

PUCCINI
TOSCA

09.14(금) ~ 15(토)
14일(금) 7:30pm | 15일(토) 3:00, 7:30pm

미포아트센터 아트홀릭

예술감독·연출 장수동 | 지휘 양진모 | 합창지휘 한승연 | 음모크지 박순재 안지현
Floria Tosca 경변화 오희진 이종은 | Mario Cavaradossi 박기천 안성화 김종일 | Barone Scarpia 박경준 정근식
Cesare Angelotti 박종선 박의현 | Sagrestano 장철우 김운민 | Spoletta 강상수
오케스트라 코제아클라시카 오케스트라 | 합창 마에스타오페라 합창단

티켓 | VIP 100,000, R 70,000, S 49,500, A 30,000
예매 | 우 인터파크 entg 1544-1555
문의 | 서울오페라극장 02-741-7389 | 세종시오페라극장 02-649-3356

같은 클래식뿐 아니라 뮤지컬 넘버 및 앵콜곡으로 한국 가곡그리운 금강산까지 열창했던 도밍고는 '한국팬들의 음악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10.26 잠실실내체육관

가을을 수놓는 마포 클래식 향연 제3회 M-PAT 클래식 음악 축제

'도시, 클래식에 물들다'라는 컨셉으로 마포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M-PAT 클래식음악축제'는 지난해 공원, 학교, 시장, 교회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클래식음악 공연을 전면 무료로 개최하여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형식면에서도 엄숙한 클래식음악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버스킹, 게릴라콘서트, 실황 상영 등 대중적인 형식을 과감하게 차용하여 클래식을 멀게 느끼는 시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 갔다.

올해에는 내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진다. 9월 5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오프닝 콘서트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중화권 최고의 한류스타 황치열이 사회를 맡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이태영),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김건우 등이 출연한다. 이날 공연은 주제 '시인과 농부 서곡',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등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으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라이브클럽, 게스트하우스 등 '홍대'로 대표되는 마포구의 문화 공간도 클래식음악회 무대로 탈바꿈한다. 루프탑이 예쁜 게스트하우스, 라이브클럽 데이 등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는 실내악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마포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어린이들과 함께 전문가의 마스터클래스와 소규모 음악회가 결합된 1박2일 클래식캠핑을 진행한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무료 전막오페라는 2회로 늘려 <사랑의 묘약>(연출 정성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손숙의 낭독음악회는 횡수를 늘리고 박정자, 윤석화가 가세하여 한국 대표 여배우 3인방의 낭독 클래식 음악회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창기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M-PAT(엠팻) 클래식 음악 축제는 마포구민이나 마포를 찾는 외국인 모두를 위한 '클래식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과 접점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퇴근길, 등하교길, 여가시간 등 여는 때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에 선물처럼 스며드는 음악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PAT 클래식음악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축제 홈페이지(www.m-pa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일부 공연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문 예약 시스템이 추가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9월 13일 개막. 39개국 142편 다큐 상영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룬 지혜원 감독의 신작 〈안녕, 미누〉를 시작으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10주년을 맞는 올해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8일 동안 39개국에서 참가한 14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이는 지난해 42개국에서 출품한 112편보다 30편이 늘어난 규모다.

영화제 개막식은 파주 출판단지 야외무대에서 9월 13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으로 지혜원 감독의 신작 〈안녕, 미누〉가 상영된다. ‘안녕, 미누’는 18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싸웠으며 또한 한국 시민운동과도 연대했던 이주노동자 밴드 ‘스톱크랙다운’의 리더이자 이주노동자 방송국(MWTV)의 전 대표였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를 카메라에 담았다. 개막식에 이어 영화제는 메가박스 백석, 고양 벨라시타, 파주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주상영관에서 다양한 특별기획과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경쟁부문에는 총 37개 작품이 출품되어 힝기러기상인 대상을 비롯해 11개 부문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 영화제의 한국경쟁 작품들을 주목할 만하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뛰어난 작품들로, 성소수자들의 욕망과 소외의 기억을 다루는 임철민 감독의 〈아광〉,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던 잠수사들을 카메라에 담은 복진오 감독의 〈로그북〉등이 관객을 매료시킬 것이다.

비경쟁부문 글로벌비전 12작품에 초청되는 감독들의 면면과 작품들도 화려하다. 빔 벤더스 감독의 신작 〈교황 프란치스코〉과 한국프리미어로 상영되며, 〈프랑스 영화학교 입시전쟁〉으로 2016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클래식상을 수상했던 클레르 시몽 감독의 신작 〈미

숙한 고독〉, 한국에서도 올해 전면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난민문제를 다룬 세계적인 중국 아티스트 아이 웨이웨이의 신작 〈유랑하는 사람들 Human Flow〉 등 해외 주요 감독들의 신작들이 제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소개된다.

DMZ비전과 국제경쟁에서 소개되는 남북 관련 다큐멘터리도 놓칠 수 없다. 북녘의 사람들과 만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담은 권은비 감독의 〈유령을 찾아서〉, 남북 유소년 축구단의 만남과 우정을 그린 서민원 감독의 〈4.25 축구단〉, 평양축전에 참석했던 캐나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렉 엘머 감독의 〈캐나다 대표단 평양축전에 가다〉 외에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다큐의 거장 클로드 란츠만이 한 여인의 흔적을 찾아 북한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은 〈네이팜〉 등에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만나는 북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0회 영화제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다큐멘터를 상영하는 ‘내 생애 최고의 다큐 10’을 선보인다. 강수진(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리스트), 승효상(건축가), 심상정(국회의원), 윤재갑(큐레이터), 이이남(미디어 아티스트), 장강명(작가), 진중권(정치 비평가), 토니 레인즈(영화 비평가), 황교익(맛 칼럼니스트)가 참여한다. 세계적인 다큐 거장 감독인 페르난도 E. 솔라나스와 아비 모그라비의 영화 세계를 일별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마스터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어 다큐제작자 및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명 조직위원장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전해온 평화의 메시지가 실현 가능한 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영화제가 특별하다”면서 “남북이 공존과 협력 속에 통일로 가는 과정을 다큐 영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형숙 집행위원장은 “10년 동안 영화제가 지켜 온 평화 생명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남북한 다큐제작 교류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실질적 중심이자 영화인과 경기도민들이 자부 할 수 있는 문화적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